

비폭력이란 무엇이고 왜 비폭력을 사용해야 하는가?

당신은 왜 ‘비폭력캠페인을 위한 안내서’에 관심을 갖는가? 아마도 무언가를 이루고 싶거나 혹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고 싶을 것이다. 당신은 적개심을 조장하는 행동들처럼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있어 궁극적으로는 실패한 캠페인들에 대해 비폭력이 어떤 대안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감지하고 있을지 모른다. 아니면 단지 뭔가 다른 것을 시도하고 싶거나 당신의 단체가 이미 조직하고 있는 행동이나 캠페인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얻길 원하는 지도 모른다.

이 안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비폭력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정의는 더 이상의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폭력(물리적 폭력 이른바 ‘구조적 폭력(빈곤, 사회적 배제와 억압)’)을 끝내고자 하는 바람에 근거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비폭력에 대한 최고의 설명은 아니다. 보다 설득력 있고, 보다 철학적이며, 보다 특정한 시간 및 장소에서 더 의미를 갖는, 개인적이며 시적인 다른 정의들이 많이 존재한다.

비폭력은 기본적인 정의에 한정되지 않고, 권력관계 및 사회구조 변화를 위한 바람, 모든 인간 및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 심지어 삶의 철학, 사회적 행동의 이론 등 보다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우리는 독자들이 이 안내서를 통해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탐구해 나가기를 바란다. 비폭력 행동을 함께 준비하면서 비폭력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를 발견하고 통찰력을 나누는 것은 값진 경험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이 비폭력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 변화를 가져오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라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의 방식으로서 실천적인 비폭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선호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정작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드러날 수도 있지만, 보통은 특정 캠페인에 대한 원칙 혹은 가이드라인의 문구가 (미리) 이러한 스펙트럼 사이의 이견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의 차이들은 캠페인에서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그 갈등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비폭력적 방식이 사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비폭력적 태도의 핵심은 반대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차이가 드러날 때 활동가들이 비폭력에 대한 서로의 근본적인 태도를 문제 삼는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캠페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지점들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 사례(몇몇은 ‘이기려’ 하고 다른 사람들은 포괄적인 해결방안을 찾으려 할 때)는 캠페인을 계획하는 데 있어 활동가들의 요구사항 및 협상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같은 질문은 논쟁적일 수 있다. 어떤 활동가들은 이 행동이 반대자들을 괴롭힐 수 있는 비용대비 효과가 큰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그것을 피할 방법을 찾는 활동가들도 있다. 재산상의 손해와 같은 논쟁적 주제들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때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직접행동이 실행되는 순간까지 미뤄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에게 비폭력행동은 반대자에 대한 적대적인 행동을 피하는 것(심지어 그들에게서 좋은 점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다른 비폭력 활동가들은 그들에게 ‘창피’를 주거나 ‘전쟁범죄자’, ‘인종차별주의자’, ‘부패한 자’라는 낙인을 찍을 방법을 찾기도 한다. 욕

설을 하거나 공격적인 언행을 하는 등에 대한 문제는 직접행동 가이드라인에서 잘 다뤄질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차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등은 비폭력행동을 준비하는 ‘모둠 (affinity group)’ 차원에서 보다 깊게 토론될 수 있다. 이러한 소규모 모둠들을 구성하는 것의 목표는 구성원 서로가 비폭력행동에서 우려되는 점들을 털어놓기 위한 편한 공간이자 상호학습을 위해 ‘신뢰할만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모둠에서는 일반적으로 구성원들이 비폭력행동과 일반적으로 연관된 하나의 문구(예를 들어 ‘권력에게 진실을 말하다’)를 선택하고 그 문구가 각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어떤 이슈들을 제기하는지를 서로에게 설명하고, 통찰력을 나누며, 토론을 통해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서로의 이해를 깊게 한다.

비폭력 활동가들은 우리의 행동 자체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미래를 표현해야 한다는 공통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간디가 얘기한 건설적 프로그램에 내제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우리 스스로가 ‘평화가 되자’는 생각, 즉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원하는 세계를 반영한다는 운동의 신념이기도 하다. 우리가 ‘권력자에게 분노하라’, ‘생명을 존중하라’, ‘다양성을 존중하라’ 등의 문구를 사용할 때, 우리는 그 자체로 우리의 힘의 원천이자 우리가 다가가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연결점인 근본적인 가치들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비폭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비폭력은 다음 3가지 지점에서 캠페인을 강화한다.

1. 참가자들 내부에서 : 참가자들 사이의 믿음과 연대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비폭력은 (이상적으로는) 참가자들 스스로의 힘의 근원을 행동과 연결시킨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다른 이들의 지지를 받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얼마나 창조적일 수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
2. 반대자와의 관계에서 : 비폭력의 목표는 반대자의 폭력을 억제 하거나 혹은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것은 그들에게 정치적 ‘역풍’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이 외에 비폭력은 억압적인 제도를 떠받치는 ‘권력축’을 손상시킬 방법을 찾는다. 비폭력은 반대자들을 생명이 없는 단순한 도구로 취급하기보다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충성 의무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3. 제3자와의 관계에서 : 비폭력은 제3자 혹은 외부인(특정 문제에 대해 아직은 관심을 두지 않거나 그것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들, 잠정적 참여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비폭력 사상의 개척자인 진 샤프(Gene Sharp)는 비폭력투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네 가지 메커니즘을 제시했다.

- 1) 전향(conversion) : 가끔 캠페인은 반대자들을 비폭력 활동가들의 관점으로 설득한다.
- 2) 강제(coercion) : 때때로 캠페인은 옳고 그름에 관한 활동가들의 관점으로 반대자를 설득하지 않은 채 그들의 관점을 포기할 것을 강제하는 수도 있다.
- 3) 합의(accommodation) : 상대방이 캠페인의 요구사항을 양보하지 않고 권력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캠페인과 ‘합의’할 것인가를 궁리할 때.

4) 분열(disintegration) : 1989년 이후 샤프가 추가한 메커니즘. 친소국가들이 정당성을 상실하고 그것을 보충할만한 능력을 거의 갖추지 못하고 ‘민중의 힘(people power)’에 의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분열되었다.

비폭력에 대한 학술연구들은 운동의 궁극적인 성공, 특히 권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안내서는 캠페인을 계획하고, 이슈를 보다 생생하고 명확하게 만들고, 캠페인 전략을 짜고, 행동을 준비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과정들에 보다 관심을 두고 있다. 우리가 이 안내서에 쓴 것들은 사회 운동의 실천, 특히 세계 여러 나라의 평화, 반군 사주의, 반핵 및 사회정의 운동의 경험에 확고하게 기초를 두고 있다.

비폭력트레이닝

우리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 플래카드를 들고 전단지를 돌리기 전에 반드시 비폭력트레이닝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폭력트레이닝(문제 분석, 대안 구상, 요구 사항 마련, 캠페인 전략 개발, 행동 계획 세우기 및 준비하기, 행동 혹은 캠페인 평가)이라 부르는 전 과정은 조직의 영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들이 직접행동에서 더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도우며, 직접행동이 지닌 위험성과 문제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행동의 한계를 넓힌다. 기본적으로 비폭력트레이닝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실지로 실험하고 개발하거나 경험을 분석하고 평가할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낸다.

비폭력트레이닝은 캠페인 혹은 직접행동에서 비폭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참가자들 공동의 이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새로운 기술들을 익히고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친 파괴적이고 억압적인 태도들을 잊게 하는 참여적 교육의 경험이다. 비폭력트레이닝은 함께 활동하는 것을 배우고 조직(혹은 공동체)의 목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직을 강화하고 공동체의 유대를 발전시킬 수 있다. 비폭력트레이닝은 비폭력의 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며 그 힘을 더 기를 수 있다. 이것은 또한 걱정, 두려움 등의 감정들을 나누고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단체 내부의 위계 및 억압, 그것의 작용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개인 스스로에게는 트레이닝의 자신감을 기르고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명확히 하도록 도울 것이다. 비폭력트레이닝의 목적은 참가자들이 집단행동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과정은 다양한 훈련 및 트레이닝 방법들을 아우르며 이것의 몇몇 사례들은 이 안내서 제7장에 소개되어 있다.

비폭력트레이닝은 사람들이 비폭력직접행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인 운동의 방법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치며 집단 내 상호작용 과정 및 억압의 문제들을 다룬다. 비폭력트레이닝은 행동의 시나리오를 익히고 계획을 발전시키며 훈련하고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 이해하는 등 종종 사람들이 특정 행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용된다. 이것은 조직에게는 결속을 다지고 모듬을 형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역할극을 통해 (‘역할극’ 활동 프로그램 참조), 사람들은 직접행동에서 경찰, 공무원이나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예상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할 준비가 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비폭력트레이닝의 기간은 운동의 필요 및 일정, 트레이닝의 목표, 참가자들과 트레이너가 가진 경험 및 면면에 따라 몇 시간에서 몇 달까지 다양할 수 있다.

무엇이 캠페인을 비폭력적으로 만드는가?

어떤 캠페인이 비폭력에 관한 명확한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연구 및 정보 수집, 교육 및 트레이닝, 전술 개발 등 캠페인의 기본적인 단계들은 대부분 비슷하다. 그렇다면 ‘비폭력캠페인’에 고유한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폭력적이지 않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비폭력을 실천하는 많은 단체들과 캠페인들은 그들의 관점을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비폭력 원칙들을 정식화했다. 아래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의 헌장(Statement of Principles)은 우리가 비폭력을 받아들인다고 말할 때 의미하는 비폭력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비폭력은 시민불복종과 같은 적극적인 저항과 대화를 결합할 수 있다. 비폭력은 또한 비협조(억압적 시스템이 지탱 가능토록 하는 모든 협조를 중단하는 것)와 대안을 창출하는 건설적 활동을 결합할 수도 있다. 분쟁에 대응하는 방법의 하나로 비폭력은 때때로 사회관계망을 강화하고, 사회의 하층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서로 다른 입장에서 해결방법을 찾는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등 분쟁과의 화해를 시도한다. 이러한 목표들이 즉각적으로 달성될 수 없다 하더라도 비폭력은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결심을 더욱 견고하게 유지케 한다.’ (<http://wri-irg.org/statemnt/stprinc-en.htm>)

아래의 리스트들은 비폭력에 관한 구체적인 원칙들이다. 몇몇 원칙들은 특별히 비폭력을 내세운 캠페인이 아닌 곳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원칙들의 조합이 캠페인을 비폭력적으로 만든다.

비폭력 행동의 원칙들

이 원칙들은 미국의 비폭력 트레이너들과 이 안내서의 편집위원회가 참여한 집단적인 과정을 통해 개발되었다. 우리는 단체 내부에서 토론이 자극될 수 있도록 이 원칙(혹은 다른 원칙도 좋다)이 활용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비폭력 원칙과 관련해 단체 구성원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스펙트럼 혹은 지표’ 게임을 활용하라. 만약 차이의 폭이 크다면 그것이 비폭력캠페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토론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비폭력 가이드라인의 활용은 그룹 차원에서 (적어도 그 캠페인의 목적을 위해) 합의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 우리는 사람 개개인의 가치를 인정한다. 본인 및 다른 이들의 존엄성과 인간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천부적인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반대자들을 적으로써 함부로 대하길 거부한다.

■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진실의 한 부분임을 인정한다. 누구도 진실을 전유할 수는 없다. 누구

는 완전히 옳고 누구는 완전히 그르지 않다. 우리의 캠페인, 모임, 교육 및 행동에는 이러한 원칙이 반영되어야 한다.

■ 우리의 행동들은 의사소통 및 민주적 절차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방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능력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활동한다. 캠페인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개인의 자결권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적, 외적) 민주적 구조를 촉진한다.

■ 우리의 수단들(행동 및 활동)은 결과(삶에 대한 긍정, 억압에 대한 반대 및 정의 추구, 모든 이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와 일치한다. 우리의 전략은 이러한 원칙 위에 세워져야 하며 폭력이나 기만적인 방법을 통해 달성한 ‘승리’는 정당화될 수 없다.

■ 우리는 고통을 가하느니 차라리 받는 것을 선택한다. 고통을 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모든 개인에 대한 가치에 근거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실천과 이상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만약 우리가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폭력적으로 그것을 되갚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행동의 결과가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감옥을 채우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

■ 우리는 합의된 가이드라인들에 따라 비폭력 행동을 위해 우리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데 전념한다. 만약 필요하다면 이 실천을 더 잘 이해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비폭력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이나 워크숍을 개최할 수도 있다.

비폭력 가이드라인

1930년대 간디에 의해 규정된 행동강령(Code of Discipline)으로 돌아가, 모든 참가자들이 동의하는 ‘비폭력 가이드라인’이 많은 캠페인들에서 개발되었다. ‘비폭력 가이드라인’은 비폭력 원칙과 다르다. 비폭력 가이드라인은 특정 행동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이다. 그것은 매우 실용적인 측면에서 서술되거나 (‘우리는 어떠한 무기도 휴대하지 않을 것이다’) 보다 철학적인 측면으로 선언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창조하고자 하는 세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함께 모일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비폭력’이란 무엇인가 혹은 우리는 왜 비폭력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동의는 단순히 추정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소규모이며 명백히 동질적인 집단이라 하더라도 토론을 해보면 비폭력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및 다양한 수준의 실천에 대한 견해가 나온다. 비폭력 가이드라인은 시위(행동)에서 무엇이 예상되는지를 명확하게 하며 비폭력 정신을 보여준다. 비폭력 시위 도중 군중들의 분위기는 폭언이나 심지어 폭력으로 이어지기 쉽다. 정부 측 잠입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폭력적으로 행동하도록 부추기는 방식으로 시위대의 신임을 떨어뜨리려고 할 것이다. 비폭력 합의들 및 비폭력 트레이닝은 심지어 비폭력행동 참가자들이 이 분야에 경험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대규모의 사람들이 캠페인에 비폭력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효과적인 비폭력 캠페인을 위해서는 조직자들이 얼마나 비폭력 행동의 원칙들에 충실한지 혹은 얼마나 캠페인 전술들이 잘 조직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시위 및 시민불복종 행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비폭력의 원칙을 얼마나 잘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적이다.

비폭력 가이드라인의 사례들:

■ 파슬레인 365(Faslane 365):

http://www.faslane365.org/fr/display_preview/nonviolence_guidelines

■ 레이큰히스 액션그룹(Lakenheath Action Group):

<http://www.motherearth.org/lakenheathaction/nv.php3>

■ SOA 워치(School of the Americas Watch): <http://www.soaw.org/article.php?id=1093>

Principles of the Students' Union of the University of Prishtina, 1997

■ 폐쇄, 나토!(NATO-ZU/Shut down NATO): Action guidelines NATO-ZU/Shut down NATO, March 2009

비폭력 행동의 방식들

진 샤프(Gene Sharp)는 198가지 비폭력 행동의 방법들을 연구하고 목록화 하였고 이는 1973년 ‘비폭력 행동의 정치학(Politics of Nonviolent Action)’에 처음 소개되었다. 이 방법들은 3가지 개괄적인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항의 및 설득(Protest and Persuasion)’, ‘협력거부(Non-cooperation)’, ‘비폭력적 중재(Nonviolent Intervention)’가 그것이다. 이것들은 더 나아가 몇 개의 절로 나뉘는데 자세한 목록은 위키 페이지 혹은 <http://www.aeinstein.or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항의 및 설득

■ 시위 -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리를 걸으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3년 2월 15일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처럼. 이 시위는 반전시위 사상 가장 규모가 컸던 것으로 전 세계 600여개 도시에서 진행되었고 런던에서만도 2백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했다.

■ 서명운동 - 특정 정책에 반대하는 서명용지에 서명하기. 예를 들어, 이라크 전쟁 동안 미국과 영국에 스웨덴 무기 수출을 반대하는 서명.

2. 협력거부

■ 보이콧 - 그것을 판매하는 대상에게 불판을 보여주기 위해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거부하는 것. 예를 들어 아파트헤이트 정권 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품들에 대한 보이콧. 처음에는 개인들과 단체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물품들에 대한 보이콧을 시작했고 그 얼마 후 모든 국가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보이콧했다.

■ 파업 - 일하기를 거부하는 것. 예를 들어 첫 번째 인티파다(1987년 시작된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운동) 기간 동안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인들을 위해 일하기를 거부하였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잃었고 경제는 침체되었다.

■ 정치적 협력거부 - 예를 들어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은 병역거부를

원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단체 중의 하나이다.

■ 협조를 거부하기 -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중 노르웨이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나치 커리큘럼을 따르기를 거부하였다. 그들은 불복종을 이유로 강제수용소로 보내졌으나 선생님들이 항복하지 않을 것임을 이해한 나치에 의해 대부분이 다시 풀려났다.

3. 중재

■ 봉쇄 -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의 몸을 배치하는 것. 예를 들어 이스라엘 사람들과 국제연대 활동가들 팔레스타인 가옥을 부수려고 하는 이스라엘 불도저를 몸으로 가로막는 것.

■ 예방을 위한 존재 - 분쟁지역에서 위협에 처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 예를 들어 멕시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콜롬비아의 평화감시자들(peace observer).

■ 평화적 활동으로 전환하는 행동들 - 공개적으로 무기를 해제하고 기꺼이 형벌을 감수하는 것.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의 트라이던트 핵잠수함을 무장해제 한 것.

비폭력 행동의 단계들

사회 변화를 위한 비폭력 캠페인을 개발하고 수행해 나갈 때 우리는 부정의를 알리고 거기에 항의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압제자들에 협조하는 것을 거부하고 비폭력적으로 그것에 개입하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는 건설적인 프로그램 또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의 목표인 변화한 세상에서 우리가 실제로 사는 것이다.

캠페인 각각의 단계들에서 나오는 대립적인 행동과 건설적인 행동 사이의 연관성은 “비폭력 행동의 단계들” 도표에 나와 있다. 이 도표는 테오도르 에버르트(Theodor Ebert)의 책 “내전에 대한 비폭력적 반대-대안(Nonviolent Rebellion-Alternatives to Civil War)”에 근거하고 있다. 비폭력 캠페인의 초기 단계에서 강조점은 그 이슈를 공공의 영역에 가져다 놓는 것이다. 잘 조직된 캠페인은 그 이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변화를 고무하는 방법으로 대중적인 시위를 이용할 것이며 가능한 대안(건설적인 행동) 또한 보여줄 것이다. 만약 이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캠페인은 “제2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 캠페인은 합법적인 방식의 비협조(파업, 소비자 보이콧 운동, 태업 등)뿐만 아니라 합법적이며 획기적인 활동들(공정무역, 대안적 경제 구조, 비폭력 중재 등)을 벌임으로서 대중적 압력을 높여갈 것이다. 이 단계의 목표는 이해관계(사회적 비용)를 높이고 부정의를 행하는 자 혹은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들에 대한 보상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캠페인은 첫 번째 단계에서 취한 행동들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다.

위와 같은 행동으로 원하는 목표들에 도달하기에 충분할 것이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활동가들에게 보다 위험요소가 많은 비폭력 행동들(이것은 또한 대중에게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을 사용할 수도 있다. 행동의 세 번째 단계는 항의의 방법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민적 권력찬탈로서 비폭력 시민불복종에 대한 사용이 될 것이다. 이것은 시민 스스로의 권력을 행사하는 행동 혹은 그것을 실행함에 있어 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하는 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난민의 국외 추방을 막기 위한 피난처를 제공, 비폭

력적 중재, 환경적으로 파괴된 공장 부지에 환경 친화적인 마을을 건설하는 것 등.

비폭력 캠페인들이 발전되어감에 따라 그것의 전술들도 그 다음 단계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전 단계의 전술들은 다음 단계에서 그대로 사용되게 될 것이다. 아래 도표는 이러한 비폭력 행동의 단계들이 융통성 없는 직선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들의 연관성 및 행동의 종류를 보여주는 것은 유용하다. 캠페인은 상황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행동을 선택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보다 위의 단계 혹은 보다 낮은 단계)로 이동할 것을 결심하게 될 것이다. 캠페인은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포함된 해결방법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전체 캠페인을 통해 반대자들과 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만약 캠페인이 일시적으로 대중적인 압력을 줄이면 어떤 특정 시기에 이러한 대화는 쉽게 시작될 수 있다. 캠페인은 또한 이러한 것들이 건설적인 행동에 대한 그들의 활동을 증진시키고 대면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성공적인 캠페인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캠페인 전체의 활동들 및 그 효과를 계속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캠페인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대면적인 행동들뿐만 아니라 건설적인 행동의 이행을 추적하기 위해 이 도표의 뼈대를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은 이 두 행동이 캠페인의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해 어떻게 함께 어우러져 수행되어 왔는가에 대한 평가를 돕는다.

비폭력 행동의 단계들

단계들	대면적 행동	건설적 행동	어떻게 작동하는가
공공 분야로 이슈를 가져오기	항의 (시위, 진정, 유인물 배포, 농성)	대안 제기하기 (토론회, 대안 보여주기)	출판 / 설득
이슈를 다루는 합법적 행동들	적법한 비협조: (과업, 소비자 불매운동, 태업)	합법적인 혁신 활동 (공정무역, 자유학교, 대안경제, 도덕적인 투자, 비폭력적 중재)	이해관계(비용)를 높이고 부정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 최소화
이슈를 다루는 불법적 행동들	시민불복종: (연좌농성, 봉쇄, 납세거부, 파업, 전쟁에 대한 저항)	시민적 찬탈: (피난처 제공 운동, 해적방송, 비폭력적 중재)	권력의 방향 전환

* 독어에서 영어로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번역함. 번역자 에릭 바흐만(Eric Bachman).

이 도표는 테오도르 에버트트의 책 “내전에 대한 비폭력적 반대-대안(Waldkircher Verlagsgesellschaft mbH, 1978 ISBN 3-870885-030-1)” 37쪽 “도표: 비폭력 행동의 단계들 (Chart of escalation of nonviolent actions)”에 근거하고 있다.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들.

사무실 점거

클래식 ‘혼돈’ 행동. 아주 간단. 활동가들이 관련 건물에 들어가서 일정한 공간을 점거하는 것. 주출입구 혹은 현관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예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특정 사무실을 점거하기도 함. 캐비닛이나 컴퓨터 파일 등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행동으로도 사용됨. 앉아서 회사 직원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가 되기도 함.

주주총회 행동

보통 기업의 연차총회에서 진행. 주주인 활동가들이 다른 주주들과 함께 임원들에게 곤란한 질문을 하고 고위급 간부들의 프리젠테이션을 방해하며 ‘대안적’ 연례 보고서를 나눠주고 몇몇의 경우 아예 연차총회를 정지시키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 단상을 점거하거나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키거나 확성기나 오디오, 비디오의 플러그를 뽑아버리는 것. 다른 정부, 기업의 컨퍼런스나 무역박람회에서 이런 기술들이 사용됨.

봉쇄

운반이나 직원들이 일터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창고나 기업 사무실을 봉쇄. 활동가들이 스스로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 ‘lock-ons’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경찰이나 경비가 활동가들을 치워버리기 어렵게 만듦. 슈퍼마켓, 급유소, 군부대에서 행해지기도 함. 몇몇의 활동가들이 상대적으로 정교한 장치를 가지고 진행되는 소규모 봉쇄에서부터 대규모 군중이 신체 무게만을 이용해 길이나 정문, 출입구를 봉쇄하는 것까지 다양.

운송수단에 대한 행동

다양한 형태. 가장 흔한 형태는 수송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 예를 들어 핵 물질 운송에 대항하는 행동이나 다른 군수장비들을 막아서는 것. 혹은 건축부지의 건설차량을 막아서는 것. 이 행동은 정확하고 좋은 정보가 요구됨. 아니면 무작정 기다리고 앉아있을 수도. 안전과 관련한 문제도 생각을 많이 해야 함. 하지만 이 행동은 매우 대중적인 선언되며 회사가 비용을 치르게 할 수도 있음. 핵물질 수송 기차에 저항했던 독일의 경우처럼 운송망에 저항하는 행동일 때도 있고 영국의 활동가들처럼 국제무기박람회에 입장하는 대표단들을 막기 위해 기차를 멈추는 행동일 때도 있음. 비행기도 대상이 된 적이 있음. 추방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이 비행기 안에서 자신들의 자리에 착석을 거부하고 결국 끌려 내려오기 전까지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막은 행동. 활주로도 타켓이 되어왔음. 반군사주의자들에 의해. 건설기계들에 저항하는 행동, 디저다이빙.

현수막 걸기

그린피스의 시그너처(보그병신체) 행동.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일수록 얼마나 오래 그 현수막이 붙어있을 수 있느냐가 달려있음. 부산 광안대교 현수막처럼 어떤 곳은 특별히 훈련받은 클라이머가 필요하며 아무나 할 수 없는 행동임. 밤에 빌딩 한 쪽에 프로젝터를 쏘는 행동. 음향효과와 함께.

구럼비 파괴하는 소리나 고통받고 있는 헬기소리 등.

신병모집이나 신규모집에 저항하는 행동

군대나 기업 신규모집 행사에서 사용되었던 행동. 특히 대학 캠퍼스에서. 예를 들어 광고 포스터 위에 ‘취소’ 사인을 풀칠하기, 모든 자리를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기, 간담회 자리나 부스에 가서 곤란한 질문들을 큰소리로 하기, 같은 빌딩에 패러디 부스나 패러디 행사를 차리고 그들과 다른 얘기를 들려주기, 봉쇄와 다이인.

다이인, 연좌시위

우리 몸을 이용해 공간을 점거하는 것. 길, 대학행정건물, 수퍼마켓, 정부기관 사무실로 가는 계단 등. 다이인은 전통적인 연좌시위가 살짝 확장된 것. 무기거래, 핵 혹은 무기산업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이 길이나 특정 건물 앞에서 봉대를 감고 가짜 피를 뿌리고 드러누워 그야말로 ‘죽는’ 행동을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것.

윤리적으로 물건 훔치기

소매상점의 선반에서 비윤리적인 상품을 가져다 정당한 주인에게 되돌려주기. 숲활동가들이 대형수퍼의 DIY 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불법적으로 벌목된 열대활엽수를 경찰서에 가져다주고 소매상을 불법 벌목에 공모한 죄로 고발한 사건.

서브버타이징

광고공간을 되찾아 우리의 메시지를 위해 사용하는 행동. 예를 들어, 지하철 광고위에 붙이는 스티커, 그들의 메시지를 ‘돋보이게’ 하거나 지우는 것. 최근엔 환경이나 사회정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에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 있는 패러디 신문, 컨퍼런스 프로그램 & 잡지 등장.

긍정적 대안

대안을 창출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빼놓고 비폭력직접행동을 논할 수 없음. 무언가에 ‘대항’ 하는 행동을 하는 캠페인들 옆에서 이뤄지기도 함. 맥도날드 밖에서 공짜 베지버거를 나눠주는 활동가들, 공동체 정원을 만드는 것, 카풀하기 등. 공간점거가 예술관이나 정원으로 변모하기도 함.